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오늘 하루,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의 순종이 말이나 형식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찬양

1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은혜의 찬양 223장)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나 주 안에서 있네
예수 나의 견고한 반석 내 소망 주 말씀에 있네
내 소망 주 말씀에 있네 내겐 소망 있네 내겐 미래 있네
주 계획하시네 내 미래를 내 소망을 신실한 주 말씀
능력의 주 말씀 날 구원하시네 나는 믿네 확신하네



2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찬송가 315장)

- 1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 2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뵈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 3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 4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말씀 읽기 사무엘상 15:10-35

- 10 여호와와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11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 12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1)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 13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 14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됴니이까 하니라
- 15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 16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 17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 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 18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 19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 20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와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 21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 22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 23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 24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와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 25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 26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 27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겹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 28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 29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 나이다 하니
- 30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 31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 32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 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 33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찢어 쪼개니라
- 34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 35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본문 배경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으시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루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공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아말렉을 공격하여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대를 모아서 아말렉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과 달리, 아말렉에게 승리한 사울은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사로잡았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좋은 양과 살진 소를 살려 두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사울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듣게 된 사무엘은 아침 일찍 사울을 찾아가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보자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자랑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렇다면 어쩌서 가축의 울음소리가 들리나고 꾸짖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의 꾸짖음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축들을 남겨 둔 것이라고 변명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자신에게 말씀하셨다고 전하며,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크게 꾸짖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서 변명합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 15:22).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다고 전합니다. 그제서야 사울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 버렸습니다.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그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내 필요에 따라, 내가 필요한 만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11절)

답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설 사울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으로 왕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내쫓으십니다.

2 하나님이 사울에게 원한 모습은 무엇인가요?(22절)

답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해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지적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떤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보다 자신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화려한 제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말씀 적용

1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2 하나님은 그 어떤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5-5 사무엘이 이르되

사무엘상 15장 22절

♩ = 100

작곡 유라혜

C Am F G7 C Am F G7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다 — 른 제사를 그

5 F G/F C Am F G/F C

의 목 소리를 — 청종하는 —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9 E9 Am7 D7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 듣는 것이 — 숫양의 기름보다

12 G7 C Am F G7 C

나으니 — — 사무엘상 십오 장 이십이절 아멘 —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나 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갈 때, 우리 가정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